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 都 日 報 joongdo.co.kr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식 개최

전경열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3-11-15 10:10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14일 2023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전북 고창군이 지난 14일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에서 '2023년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 의장, 교육생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 개관상 및 공로상 수여 등 새내기 농업학교와 체류형 농업창업교육 통합수료식으로 진행됐다.

'고창군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는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에게 체류 공간과 기초 영농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전북 고창군이 지난 14일 2023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식을 개최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고창군이 올해 추진한 새내기 농업학교와 체류형 농업창업교육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9개월간 작물 재배 등 기초 영농기술교육, 하우스작물 실습교육, 귀농·귀촌 정책 교육, 현장실습 및 선도 농가 견학 등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총 323시간 이상 진행했으며, 52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이수했다.

군은 지난 5년간 133세대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그 중 85세대 149명이 고창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체류형 입 교생 22세대 가운데 12세대 18명이 고창 지역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정착 예정률은 56%로 전망하고 있다.

고창군은 2024년 교육생 모집을 금 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접수를 받으며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고창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 귀촌인이 해당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귀농 귀촌의 초석을 다져온 교육생 여러분의 영광 스런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고창군을 찾아온 귀농인 여러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프린트

취소